

Global Insight 주최 세계경제전망 컨퍼런스 참석

- 강두용 선임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자 : 강두용 선임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- 출장기간 : 2012년 4월 23일(월) ~ 4월 28일(토) (4박 6일)
- 출장지역 : 영국 런던, 프랑스 파리
- 출장목적
 - IHS 글로벌인사이트 주최 2012년 춘계 세계경제전망 컨퍼런스(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) 참가
 - OECD 과학기술산업국(Directorate for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; STI)을 방문하여 OECD의 산업연관표 작성 및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수집

○ 세부 출장일정

	주요 일정
4.23(월)	서울 출발 → 런던 도착
4.24(화)	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1일차 세션
4.25(수)	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2일차 세션
4.26(목)	런던 출발 → 파리 도착
4.27(금)	OECD 과학기술산업국 방문 파리 출발
4.28(토)	서울 도착

2. 주요 조사내용

(1)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주요내용

* 컨퍼런스의 세부 프로그램 및 발표자는 IHS Global Insight의 웹사이트(www.ihs.com/weocspring2011presentations) 참조

발표 1

The Global Economic Outlook : Three Big Worries in 2012 : Eurozone, China, and Iran

(Nariman Behravesht : GI Chief economist)

- 세계경제 :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긍정적인 추이
- 미국 경제성장 : 완만하지만 개선 추이
- 유럽 : 완만한 경기침체, 붕괴(melt down) 위험은 감소
- 신흥권 : 성장 둔화 중이나 대체로 양호
- 중국 : 소프트랜딩 가능성 높음
- 유로존 위기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 진행중
- 유가 관련 위험은 오히려 증가
- 전체적으로 주요 산업과 미국의 중장기 전망은 다소 개선

○ 신흥시장 : 디커플링은 약화, 하지만 대체로 양호

- 주요 신흥국은 아직도 지나치게 수출의존적 : 미국과 유럽의 회복 지연으로 성장에 타격
-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은 자원보유 신흥국에 긍정적
- 신흥권은 재정여유 : 정책 운용 여지 상대적으로 풍부
-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금리 운용에 여유
- 신흥권 성장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향후 2020까지 유지 or 상승 전망
- 결론 : 신흥권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성장기회를 제공

발표 2

Key Issues in the Global Outlook

(Nariman Behravesht : GI Chief economist)

○ Oil Prices : Growing Threat?

- 편더멘탈은 단기적으로 높은 유가를 지지 : 여유생산능력 별로 없음
- 이란 리스크 증가는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요인
- 미국 소비자는 고용 개선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유가 상승 영향 다소 상쇄, 반면 유럽은 그렇지 못함.
-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희박. 그보다는 걸프지역에서 적대적 긴장의 증가 가능성이 높음 ; 모두 가능성은 20% 이하
- 중기적으로는 비재래식 석유 공급을 통해 유가 상승이 억제될 전망. 천연가스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
-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모든 상품가격에 하방위험요인
- 결론 : 현재의 유가는 경기회복의 big threat는 아니나 일시적이라도 추가 상승시 상당한 충격 가능성

○ 인플레이션 압력 : benign for how long?

- 모든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중
- 미국과 유럽은 아직 공급과잉 존재
- 신흥권은 식품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

- 반면 유가 상승은 불안요인
-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은 금융완화 지속
- 신흥권 중앙은행도 금리 하락 시작
- 결론 : 금융환경은 좀 더 완화될 전망

○ 환율 : 변동성 확대 전망?

- 글로벌 임밸런스 여전히 큼.
- 달러 절하 압력은 지속 전망
- 유로는 약세, 엔화는 강세 지속 전망
- 국가채무 불안은 환율 변동성 확대 (특히 유로와 달러)
- 정책 개입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요인
- 환율 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
- 결론 :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통화 약세로 혜택을 볼 전망

○ 부채문제 : 총부채가 중요

- 미국은 민간 부채재조정에 상당한 진전, 반면 유럽은 그렇지 못함.
- 총부채는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(영국 등)에서 불안요인
- 주택가격 버블은 영국과 스페인등 일부 유럽국에서 중요한 문제
- 저성장, 높은 부채, 금융권 불안, 주택가격 버블은 다음 10년간 유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
-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유럽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음 : 미국은 상대적 고성장, 낮은 고령화,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
- 결론 : 미국의 문제는 정치적 위기, 유럽은 정치적 위기이자 구조적 위기

○ 장기 추세 : 생산성 증가가 핵심 결정요인

- 신흥권의 생산성 상승은 인상적 ; 다만 문제는 middle income trap 가능성
- 2000년대 후반 선진권의 생산성 상승 부진은 대침체에 기인
- 특히 일부 남유럽 국가의 저생산성이 우려
- 미국의 생산성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.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
-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혜택을 볼 것이며 차세대 기술혁신(나노기술과 에너지 기술 등)도 기여 전망

- 결론 :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

○ 지역별 요약

- 유로존 : 위기 완화.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위기는 지속중. 2012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심화 전망. 하반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. 중기적으로는 저성장 불가피
- 영국 : 경기회복은 완만할 전망. 장기적으로 성장제약 요인(높은 금융부채, 가계부채 재조정 등)
- 이머징 유럽 : 수출환경 불확실, 긴축 예상
- 러시아 : 수출 증가 전망, 경기침체로부터 완만한 재부상 전망
- 미국 : 성장세 회복중이나 완만할 전망. 재침체 가능성은 20%로 하락. 재정 긴축과 의료보험 부담이 위험요인
- 아시아 : 성장전망 여전히 밝음. 중국 경착륙 가능성은 15~20%로 하락
- 일본 : 복구수요, 일본은행의 금융완화, 수출증가로 회복세
- 인도 : 인플레이 압력으로 성장세 둔화. 더블딥은 없을 것
- 중국 : 내외수가 동시 약화되는 double squeeze 가능성 아직 존재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착륙 가능성이 지배적. 장기적 리스크는 높은 편(금융부채 취약, 수출시장 부진, WTO 가입 이후의 수출 고성장 둔화 불가피. 경제개혁 미진)

○ 오일 쇼크 시나리오
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(기뢰 매설), 나토 복구 작업 1개월 완전 복구 3개월 소요
- 유가는 첫분기에 240달러, 2분기에 160달러로 상승
- 초기의 1700만 배럴 공급 감소는 전략 비축유 방출, 재고 방출, 소비 절감, 파이프라인 바이패스 등으로 대응
- 유가는 3분기 이후 120달러로 복귀
- 향후 2년간 상기 시나리오 확률 20%

발표 3

Euro Crisis

Muddling Through : Greek Exit or Melt Down?

(Jan Randolph : GI Director of sovereign risk)

- 유로 시나리오1 : 완전 붕괴
 - 향후 1년 가능성 2%, 5년 가능성 3%
 - 정치 불안, 리스크가 중심부로 확산, 이태리와 스페인 위기 심화시
 - 코스트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억제 요인

- 시나리오 2 : 1국 이탈(Greek Exit)
 - 1년 가능성 20%, 5년 가능성 40%
 - 해당국의 정치적 불안

- 시나리오 3 : 유로 분할 (남과 북)
 - 향후 1년 가능성 2%, 5년 가능성 5%
 - 독일 중심의 북유럽은 유로 잔존, 남유럽은 자국 통화 재채택
 - 10% 미만의 낮은 가능성, 정치경제적 비용이 매우 클 것

- 시나리오 4(지배적 시나리오) : 이탈 없는 현상 유지(Muddle Through)
 - 향후 1년 가능성 76%, 5년 가능성 52%

발표 4

Scenarios for the Eurozone : Muddling through, Greek exit or Melt down

(Martin Huefner : Assenagon Asset Management Chief Economist)

- 이전 세션의 시나리오는 불완전, 하나가 빠져 있음.
 - 추가 시나리오 : 유로 성공
 - 유럽 재성장, 유럽은 유럽합중국을 지향.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경제 제3축 형성
 - 유로가 제2의 기축통화로 부상, 지역 경제통합의 모델로 부상

- 성공의 가능성은 존재
 - 재정적자는 미국, 영국, 일본보다 적음
 - 구조조정 진행중, 수출 증가율 상승

- 그리스 이탈은 해답이 아님
 - 그리스 비중이 작아 유로 전체에 영향을 못미침
 - 단 그리스 이탈은 유로 응집력을 약화시킬 것
 - 그리스 이탈은 그리스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

- Muddling through 역시 해법이 아님
 - 지금까지의 상황이 Muddling through
 - 그동안 위기는 점점 심화. 소요재원도 더욱 증가
 - Muddling through의 지속은 결국 유로 붕괴로 이어질 것

- 유로의 진짜 선택은 'to be or not to be'
 - 성공의 전제조건은 정치적 통합
 - 성공을 위해서는 national policy가 European policy로 넘겨주어야 함
 - 유로 멤버들은 유로피언이 되든가 자국통화로 복귀하든가 선택 필요
 - 성공한 통화통합은 모두 정치적 통합을 전제

- 유로 안정을 위한 4단계
 - 재정적자 축소 : 재정협약이 유효
 - rescue fund 증액
 - 채무국의 성장률 제고
 - 재정 및 경제정책의 조화, 즉 국민경제 정책을 유로통합기구에 이전
 - 2단계는 이미 실행중, 나머지 2단계는 향후 필요

- Melt down은 경제적 파탄이 아님. 문제는 정치적 비용
 - 유럽 통합, 유럽의 평화 등에 심각한 위협
 - 타지역의 경제통합에도 악영향

- 개인적으로 Melt down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믿음.

발표 5

US Economic Outlook

(Nigel Gault : GI Chief US economist)

○ 개관

- 선행지표 개선 추이
- 은행 대출 증가세
- 고용증가율 개선
- 지연된 수요 현시화 전망 (특히 자동차 수요)
- 주택경기 바닥친듯
- 기업 자본지출 증가세

○ 유의할 점

- 통계 착시현상 : 온난한 겨울, 2008,9년 대침체 영향이 계절요인을 왜곡(특히 고용지표)
- 유가불안, 유로존 위기, 중국 경착륙 등 대외불안이 잔존
- 내부적 위기 : 2013년 재정긴축 문제

○ 연준의 선택

- 공급과잉 규모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, 과잉이 충분히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
- 연준은 고용개선이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관망중
-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은 희박. 하지만 MBS 구매 불태화 가능성
- 연방기금금리는 2015년까지 제로 근접 수준 유지

○ 재정 위협

-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2013년1월1일부로 GDP의 약 2.5%(4030억달러)에 해당하는 재정긴축 발생 ; 지출삭감(95bil)부시 감세 소멸(160bil), 급여세 인하 소멸(118bil), 긴급실업부조(30bil) 소멸

○ 전망의 전제

- 2013년 1월 이전에 정치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점진적인 방식으로 긴축이 이루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는 안정화될 전망

○ 결론

- 지표는 고무적, 완만한 성장 지속
- 2014년까지는 성장률 3% 못미칠 것
- 연준은 추가적 노력 지속 전망
- 가장 큰 위협은 유가와 유럽
- 국내적으로는 재정위협이 문제 : 2013년 1월 데드라인
- 대선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선택을 제시할 것. 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.

발표 6

The Economy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

○ GI 대선 예측 모형

- 모형은 집권당의 득표율(양당구도내)을 예상
- 모형의 주요변수와 예상 : 2012 3분기 실업률 8.2%, 인당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0.4%
- 모형에 의하면 오바마 득표율 44.5%
- 실업률 1% 하락시 오바마 득표율 2.1% 상승
- 소득 1% 증가시 오바마 득표율 1.6% 상승
- 오바마 50% 득표 위해 실업률 7.5%, 소득증가율 3% 필요

○ 모형 예측결과는 오바마 재선에 부정적,
하지만 현재 전망은 오바마 재선 가능성 : 공화당의 잘못에 기인

발표 7

China's Outlook

(Linda Yueh : Bloomberg Economic Editor)

○ 중국의 개혁과 개방

- 완만한 개혁 : 1978 농업개혁, 1984 기업 개혁
- 관리된 개방 : 1978 특별경제지역, 1992 개방정책 시작
- 시장 지원 정책은 개혁의 후기에 입법화 : 다만 시장적 인센티브는 제도개

혁을 통해 고취

○ 향후의 제도개혁

- 도시화 촉진, 소득 성장, 수요 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시장의 제도적 기초 구축에 초점
- 서비스 부문 발전이 기여 전망 : 중국의 산업화 지속에 기여

○ 전망

- 인플레이 위협과 잠재적 금융위기 가능성
- 필요한 정책조합이 난해
- 12차 계획의 초점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

○ Going out Policy

- 2000년에 천명, 2004년 FDI 및 대형 M&A로 정점
- 거시경제적 효과, middle income trap 극복에도 기여 전망
- 부작용, 국영기업과 사기업간의 차별화 필요

○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서의 중국

- 향후에도 제한적인 기여 : 단 소비기반 취약, 시장접근 제약, 제도적 불안정 등이 문제
- 내수지향적 발전은 고무적, 교역국가들에도 긍정적 : 아시아는 연계효과, 미국 및 서구는 기술과 서비스, 여타지역은 원자재 상품 측면

○ 향후 중국 개혁의 전망

- 2020 경제의 재구조화
- 2030 요소투입 제약의 심화와 더불어 생산성과 혁신 주도의 성장
- 2040 시장제도적 기초 완비와 더불어 안정적 성장

○ 결론

- 중국 주도에 의한 세계경제회복
- 세계경제의 황금기 재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이 제도적 기반구축과 더불어 대규모 개방경제로의 전환이 필요
- 고도성장의 종료? 불가피하나 당분간은 지속 전망

발표 8

중국의 주택건설경기

Implications of china's property market downturn

(Xianfang Ren : GI senior analyst)

- 중국의 주택건설 부문 특징
 - 저축-투자의 연결고리
 - 부의 재분배 기능
 - 주요 재정수입원
 - 주요 고용창출원

- 최근 상황
 - 가격 및 판매 하락 가속화
 - 재고 압력 증가

- 과거의 주택경기 침체
 - 정부조치와 대외충격이 원인
 - 양자가 동시에 발생시 대형 침체 가능성

- 중국경제에서 건축부문의 비중
 - 투자중 비중 : 부동산 23% 인프라 28% 제조업 32%
 - 철강수요의 50% 이상이 건축부문
 - 은행 중국의 총대출중 부동산 관련은 20%대 : 그 외에 비제도권 부문을 통한 금융이 많음
 - 부동산 부문은 거시정책 및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 : 중공업 발전에 기여
 - 최근 산업정책의 구조전환 가능성 : 신산업 부문 지향
 - 인구학적 변화, 도시화의 전환점 도래도 중요
 - 일본의 1990년대와는 차이 : 도시화율, 인구구조, 주택보유, 성장률, 정책 등에서 차이

- 전망
 -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.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 : 정책 실패와 대외 충격이 겹칠 경우 가능

- 경착륙시 중국정부가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가가 관건 : 정부재정, 외환보유고, 총자산규모, 금융권 예금 규모 등에 비추어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(일본의 1990년대와 다를 것)

(2) OECD 과학기술산업국(Directorate for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; STI)

1) 면담자: Norihiko Yamano (Administrator, Directorate for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, OECD)

2) 조사 내용

□ OECD 산업연관표의 작성현황 및 특징

○ OECD는 국제수준에서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비교, 지구환경 문제, 세계 화지표 개발 등을 위해 각국 통계기관의 협조 하에 1995년부터 부문분류와 가격평가를 통일한 공통규격의 산업연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

-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주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여타 국제 산업연관표에 비해 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

- 1995년판에 이어 2002년, 2006년, 2010년 3번에 걸쳐 갱신추계, 대상국가는 현재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4개국, 부문은 48부문

- STAN Industry Database(STAN),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(BTD), STAN Business R&D Expenditures by Industry (ANBERD)와 함께 부문 수준 또는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성장, 구조변화, 생산성, 경쟁력, 고용 등 다양한 국제경제 분석에 활용

○ OECD 산업연관표의 각 Edition별 작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
- 1995년 Edition

- 대상국 : OECD 10개 회원국(미국, 캐나다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일본, 이탈리아, 호주, 덴마크, 네덜란드)
- 부문수 : 35 Sectors
- 대상연도 : 70년대 초 ~90년대 초(1968~1990년)의 5년 간격
- 경상가격표, 불변가격표
- 초기 국민계정체계인 68 SNA 및 ISIC Rev.2에 준거
- 이후 edition과는 직접적인 비교 불가능

- 2002 Edition

- 대상국 : 20개국(OECD 회원국 18, 비회원국 2(중국, 브라질))
- 부문수 : 42 Sectors
- 대상연도 : 1995년 전후(1992~1997년)
- ISIC Rev.3(1989년 개정)에 준거
- 첫 번째 업데이트된 DB로서 2000년에 착수

- 2006 Edition

- 대상국 : OECD 회원국 28(아이슬란드 제외), 비회원국 9(중국, 대만, 싱가포르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인도, 인도네시아, 이스라엘, 러시아, 남아공)
- 부문수 : 48 Sectors(ISIC Rev.3의 2 digit 분류와 대략 일치), 국가에 따라 공통분류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문도 있음.
- 대상연도 : 1995년, 2000년, 또는 최근년도
- 경상가격표(국산표+수입표)
- ISIC Rev.3에 준거하여 2002 Edition과 42부문에서 비교가능
- 또한 2002 Edition과 마찬가지로 의약품, 컴퓨터, 통신장비, 항공기 등 첨단제품을 포함하도록 부문분류를 세분화(일부국가 예외)
- 93 SNA에 준거, 원칙적으로 계상되는 가격은 기본가격(basic price), 통화단위는 각국통화
- 간접적으로 계측되는 금융중개서비스(FISIM) 분이 계상되어 있으며, FISIM 추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간이 추계하여 부가가치에서 그 부분만큼 공제

- 2010 Edition

- 대상국 : OECD 회원국 33(아이슬란드 제외), 비회원국 11(중국, 대만, 인도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인도네시아, 태국, 러시아, 베트남, 로마니아, 남아공화국)
- 부문수 : 48 Sectors
- 대상연도 : 1995년, 2000년, 2005년, 또는 최근연도
- 경상가격표(국산표+수입표의 비경쟁수입형)
- ISIC Rev.3에 준거, 각국 간 비교가능

□ OECD 산업연관표의 추계방법

○ 산업연관표는 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판매 및 구입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산업(industry output) 기준과 상품(product output) 기준이 있으나 OECD 산업연관표는 산업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R&D 지출통계, 고용통계, 오염통계, 에너지소비 등 다수 Database 가 기업(enterprise) 또는 사업소(establishment) 기준으로 수집되고 있어 산업분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임.
- 둘째, 정책 초점과 관련된 문제임. OECD Database를 이용한 분석의 대부분은 각국의 산업이나 기업구조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업×산업 산업연관표가 유용
- 셋째, 통계의 질과 관련된 문제임.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연관표의 핵심 자료원인 공급·사용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, 최종수요 항목을 제외하면, 거의 대부분 기업 데이터(공급 및 중간소비 매트릭스)에 의존
- 넷째, 전환기법의 단순성임. 'fixed product sales structure' 가정을 이용하여 공급·사용표를 전환할 경우 負(negative)의 수치가 없는 대칭형 산업연관표 작성이 가능

○ 기본적으로 OECD의 (산업×산업) 산업연관표는 FPSS 가정을 이용하여 회

원국들의 공급·사용표로부터 도출

- 또한 'disclosure problem'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·사용표를 추가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OECD 산업연관표는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
 - 만약 공급·사용표가 국민계정과 STAN Database의 해당 추계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OECD 산업연관표도 이들과 consistency 유지
 -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공급·사용표를 국민계정 생산과정과 통합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추계방법은, 먼저 산업×산업 형태의 대칭표를 추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 통계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 산업분류 통합작업만을 행함.
- 또한 한국, 대만, 브라질, 인도,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각국 통계국에서 OECD 분류에 맞추어 산업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게재
-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급·사용표 체계(SUT 체계)로부터 대칭표(산업×산업)를 추계하기 위해 수학적 가정(FPSS법)에 의해 대칭표를 추계
- 이 추계법은 상품 수와 산업 수가 다른 SUT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정의 상 반드시 정치(正值)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×산업의 대칭표를 추계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
 - 또 이 FPSS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수입품과 국산품거래의 기본가격 평가에 의한 사용표가 필요하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본가격 표시의 사용표를 미공개
 - 따라서 공급표의 상품세·보조금 항목, 상업·운수마진 항목, 세수통계(OECD Revenue Statistics) 등을 이용, 기본가격 평가의 사용표를 별도로 추계하여 대칭표를 작성

- OECD 산업연관표의 각 Edition은 제각기 특정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성을 가지고 추계가 이루어짐.
 - 1995년 Edition은 ‘제품에 체화된 기술의 확산과 관련된 연구’(Papaconstantinou et al., 1996; Sakurai et al.,1996), 2002년 Edition은 ‘제품에 체화되어 있는 CO₂ 배출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’(Ahmad and Wyckoff, 2003), 그리고 2006년 Edition은 ‘Global Value Chain 관련 프로젝트’ 및 ‘체화된 CO₂ 배출량 측정에 관한 2003년 작업’의 갱신(update)과 관련
 - 또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10년 Edition은 ‘Measuring Trade in Value-added: An OECD-WTO Joint Initiative’ 프로젝트(금년 5월 중간보고, 12월 최종보고 예정)와 관련
- 한편, OECD 산업연관표와는 별도로, 최근 개최된 WIOD(World Input-Output Database) Conference(2012. 4. 24-26, Groningen, The Netherlands)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 및 국가간 비교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국별 산업연관표의 공표와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사례들이 발표되었음.
 - 2009년 5월부터 3년간 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, 대상국가로서 EU 27개국과 13개 주요국을 포함하고 있고 대상연도 또한 장기간(1995~2009년)을 커버하고 있으나, 부문 수가 35부문으로 OECD 산업연관표보다는 적다는 단점
 - World Input-Output Table, International Supply and Use Table, National Input-Output Table, National Supply and Use Table, Socio-Economic Accounts, Environmental Accounts로 구성
 - OECD 산업연관표와 함께 활용할 경우, 국제수준에서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비교, 또는 세계화가 무역패턴이나 환경문제, 사회경제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